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21년 2월

선교편지 제 140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필리핀은 열대성 기후 지역으로, 일반적으로 11월부터 3월까지 건기로 분류하고 있는데, 예년과 달리 12월과 1월에 들어서 거의 매일 심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이곳은 바다로 바로 연결된 강을 따라 형성되어 있어서 강수량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집중 호우로 인해 강이 범람하는 조짐이 보이면, 도시 전체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저지대 주민들은 인근 고지대로 대피를 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사이렌이 울리면 강변에 사는 아랫동네 사람들은 집에 있는 TV를 포함한 각종 가재도구를 급하게 챙겨서, 강으로부터 거의 500여 미터 떨어진 저희 집이 위치한 언덕까지 피난을 오곤 합니다. 참으로 힘겨운 삶입니다.



비가 이렇게 오래 내리다 보니, 세탁한 빨래를 제 때에 말릴 수 없어서 집 안이 온통 눅눅한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도 높은 습도로 인하여 음습한 기분입니다. 덩달아 모기들이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생명을 위협을 주는 땡기 모기 만큼은 피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창문을 방충망으로 막고, 심지어 잘 때도 방충망을 두른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 몸에 예수의 흔적이 아닌 모기의 흔적만 늘어 갑니다. 집안으로 들어오는 각종 곤충이 많아서 그런지, 작은 곤충을 잡아먹는 도마뱀도 그전보다 더 바쁘게 벽을 타고 돌아 다닙니다. 그러나 가장 성가신 것은 '개미'입니다. 다양한 모양의 개미들이 떼를 지어 집 안을 구석 구석 돌아 다니는데, 빨간 개미에게 물리면 가려움도 심하고 흉터가 생길 정도로 후유증이 오래 갑니다. 각종 퇴치 방법을 총 동원해 보지만 그 효과는 일시적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길을 달리하여 또 나타나곤 합니다.

또한 '왕거미'의 출현은 무시무시하기까지 합니다. 호두보다 큰 몸체에 손가락 길이 만한 다리를 지닌 거미는 동물인지 곤충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거미가 나타날 때마다 소리는 제 아내가 지르고, 잡는 것은 제가 해야 합니다. 움직임이 얼마나 민첩한지 거미를 잡기위해 슬리퍼를 들고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밤이면 빛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 오려고 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나방 종류의 곤충도 경계를 해야 합니다.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나방이 떼를 지어 마치 방충망을 뜯어 낼 것 같은 위협적인 소리를 내며,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일전에 비 오는 날 밤, 작은 창 틈 사이로 몰려 들어온 나방을 퇴치하기 위한 소동은 오래 전 본 영화 중에 스티븐 스피버그의 '인디애나 존스 (Indiana Jones)'에서 나오는 한 장면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비가 계속 내리면, 주먹보다 큰 두꺼비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동네 전체를 시끄럽게 할 만큼 하루 종일 울어 댁니다. 이와 더불어 독사를 포함한 뱀들도 많이 출몰하여 동네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 넣기도 합니다.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의 요란한 소리로 인해서 밖에 나가 보니, 평상시 집 주변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던 큰 덩치의 소가 쓰러져 경련을 일으키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독사에 물려 온 동네에 소동이 난 것입니다.

이곳에서 지금까지 두 마리의 개를 키웠었습니다. 첫번째 개는 정말 정이 많이 들었는데 병으로 죽어 뒷마당에 묻어 주고, 지금 키우는 두번째 개는 집 근처에 갓난 새끼와 함께 버려져 있던 것을 데리고 와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란 새끼들은 이웃들에게 분양을 시키고 어미만 키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람의 손길이 그리웠던지, 도무지 옆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정이 많은 개입니다. 또한 낯선 사람이 와도 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모두에게 꼬리를 치며 반갑게 맞이할 정도로 온순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에, 어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에 일어나 마당에서 개와 반갑게 인사를 한 이후 방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나서 밖에 다시 나가 보니,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10분도 되지 않은 잠깐 사이에 독사에 물려 죽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비가 오는 날에 두번째 개도 뒷마당에 묻고 말았습니다. 선교지에서 한국말로 가장 많은 대화를 하는 상대가 아내 외에 집에서 키우는 '개' 였는데, 그 개를 그렇게 보내고 말았습니다.

선교지의 삶이 실제가 아닌 마치 영화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가 빨리 그치고, 화창한 해가 이 칙칙한 분위기를 태워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 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시 144:3,4)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뉴스를 통해 백신 소식이 들려 오기는 하지만, 이곳은 2021년도 2022년도 아닌 2023년이나 되어야 백신이 제대로 보급이 될 것이라는 답답한 이야기가 떠돌아 다닙니다. 확진자 수는 점점 더 증가해 가고 있지만, 이제는 새로운 노멀에 대한 피로감으로 인해서 점차 이전 상태로 돌아 가려고 하는 기미가 보입니다. 매일 발표되는 최대 확진자 숫자에 더 이상 놀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격일제로 외출이 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뜸했던 유동 인구가 전과 같이 거리와 시장에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위반자들에게 각종 벌금과 벌칙을 부과하다 못해, 경찰들은 막대기를 들고 다니며 사회적 거리 지키기 위반자들을 현장에서 막대기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처 생각지도 못한 모습들을 주위에서 자주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고스 예일교회와 아팔라야 예일교회는 예배 참석 인원수 제한, 나이 제한, 의자 거리 제한, 위생 수칙 등을 성실히 지키려고, 광고 시간을 포함하여 기회가 될 때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가 되면 결코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이러한 새로운 노멀로 인해서 지난 시간 수고했던 선교의 기반이 흔들리는 안타까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과 15세 미만은 물론 어린 자녀를 동반하는 부모들도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해야 합니다. 강대상에서 교회에 나오지 말라는 말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매주 예배에 참석한 이후 출석표에 사인을 했던 학생들도, 이제는 결석하는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규정으로 인해서 예배당에 50개 미만의 의자만 배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때로는 학생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교회를 돕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팔라야 교회는 그동안 지역 전도를 위해서 매주 토요일 마다 인근 지역의 집들을 방문하였는데, 이제 예배당 안에 배치된 의자가 만석이 됨에 따라 지역 전도도 중단을 했습니다. 당분간 현상을 유지하는 일만으로도 매우 힘겨운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인 이유로 인해서 선교가 소극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교우들을 위해서 이전보다 더 바쁘게 주중에 빠짐없이 심방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모든 교우의 집을 방문하여 예배도 드리고, 또는 형편이 되는대로 기도만 하고 돌아 오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거의 10개월이나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들을 만날 때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겨우 예수님을 알아 가기 시작했는데, 벌써 아득한 옛 이야기처럼 되어 가고 있습니다.



15세 이상 되는 학생들과 청년들은 교회에서 주일이 아닌 주중 모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인원수 제한으로 인하여 자유롭게 참석할 수 없지만, 주중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를 매일 개방하여 다양한 교회 학교, 기도회, 부서 활동에 참석하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의 끈을 놓으면, 다시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중에 주일 예배 만큼이나 중요하고 활발하게 각종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배와 각종 기도 모임의 무게가 전과 달리 매우 진지해진 큰 유익이 있습니다. 상황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은혜를 나눌 때마다 서로를 통해 교회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 선교지를 어루만져 주셔서, 전 교우가 건강하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오며,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져 복음의 지경이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엡 1:19)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57-10 226th St. 1F. Bayside, NY 11364

